

# 안동중친회 2013년 송년회

안동중친회(회장 권재주)가 주최하는 2013년 송년회가 12월 27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안동중친회관 식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대의원 권정달 총재, 권계동 상임부총재, 권오을 전 국회사 무총장, 권영세 안동시장, 권광택 시의원, 안동중친회 부회장단, 청년회 회장단, 각 읍.면.동 중친회장, 총무협의회 총무단, 능우회, 능곡회, 성곡회, 천등회 등 문중을 위해 일하고 있는 150여 명이 참석했다.

권인찬(전 경북도의회의원) 사회로 시조묘소망배를 한 후 권재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족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하고 “내년에는 도지사, 시장, 도시의회의원 등 지자체 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열심히 뛰고 바라는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는 의미에서 다 같이 단합된 힘을 과시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권정달 대의원 총재는 축사에서 “이같이 뜻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데 대하여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칭찬하고 “권문이 단합해



◇안동중친회는 종친회관 식당에서 내빈 회장단, 지역회장이 모여 송년회를 가졌다.

서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많이 진 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총재는 “족친들의 얼굴을 보니 세월이 지나간 사람도 있고 얼굴이 팽팽한 사람도 있다”며 농담을 섞으면서 좌중을 웃기기도 했다. 경북도지사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권오을 전 총장은 “현재 인구가 많은 구미, 포항, 경주 등지에 인사를 하러 다니느라 안동에선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했다”며 미안함을 표시하고 “앞으로 여론조사 전화가 오

면 끊지 말고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현재 활동중인 권광택 등 시의원 2명과 북후농협조합장에 당선된 권영구씨, 사단법인 유교문화보존회 이사장으로 선임된 권오창씨가 각각 인사말을 했다.

중식은 불고기를 곁들여 화기에 애한 분위기에서 정담을 나누다가 내년 신년인사회 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진〉

# 울산중친회정총 및 청장년회장 취임

지난 1월 11일 17시 30분부터 지상웨딩홀 대연회장에서 울산중친회 제27차 정기총회 및 청장년회 제12대 회장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지역 국회의원, 지역단체장, 시, 구의원 및 울산지역

9개 친목단체 및 내외빈등 약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혁환 중친회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권오영 회장은 신년사에서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울산중친이 더욱더 화합하고 중친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권병호 시의회 부의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제19대 임원에 대한 선임장 전담과 중친회에 기여한공이 큰 임원에게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중친회 제19대 임원에는 권희철 수석부회장, 권두호의 부회장22명 권오봉, 권해구 감사, 권혁환 사무처장, 권은목 총무가 선임되었다.

이어서 권기석 청장년회 사무국



◇지난 1월 11일, 울산 지상웨딩홀에서 권오영 회장 내외분, 최철수석부회장, 청장년회 오달이 임회장, 명달 청년회장 내외분이 축하케익을 절단하고 있다.

장의 사회로 청장년회 제12대 회장이.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먼저 권오달 회장의 이임사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권명달 선임회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권명달 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2년 임기동안 청장년회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열정으로 보답하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공로패 전달과 제12대 임원에 대한 선임장 수여가 있었다.

제12대 임원에는 부회장 권진건, 권오영, 권태호, 권기석, 권혁철, 감사 권혁구, 사무국장 권은목, 총무 권영산씨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2부 행사로 만찬 후 장기자랑과 행운권추첨을 하고 폐회했다. (울산중친회 총무 권은목)

# 권영진 前 국회의원 대구시장 출마선언

## 대구중친 방문 환영회

대구중친회(회장 권영하)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대구중친회관에서 회장단 임원 및 족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진 前 국회의원(權永鎭, 52, 안동 34世, 동정공파)의 대구중친회관 방문환영회를 가졌다. 이날 권기범 사무국장의 사회를 시조대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상음례가 있었으며 이어서 권영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면서 前 권의원의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결과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다음 권영진 前 의원(서울 노원구 乙)은 인사에서 족친 여러분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마치고 권승구회장의 친한 건배제로 마포중친회의 내일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했다.

현재 마포중친회의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고문 : 권병길, 충옥, 영관, 오현, 오현 수능, 오성, 현규, 문야
  - ▲ 명예회장: 권명오
  - ▲회장: 권승구
  - ▲ 수석부회장: 권인근
  - ▲부회장: 권경순, 태복, 영철, 덕순, 혁구
  - ▲운영위원: 권중현, 상숙, 명식, 오윤, 오준, 정찬, 종우, 순익, 승호, 난희
  - ▲감사: 권경택, 순용
  - ▲총무: 권일부
- (권오복 편집위원)

석해 준되 대해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인이 오는 1월 15일(수)대구 무역회관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고자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며 사무실은 대구범어4거리 「옛 고창 칼국수」터 6층을 빌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안동권문을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토의를 하고 간단한 다과로 좌담을 하고 폐회했다.

- ◆ 권영진 前의원 주요경력
- 학력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석사·박사취득
- 주요경력
  - 서울시 정부부시장(前)
  -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 기획단장(前)

# 능곡회 송년회

안동능곡회(회장 권영훈)는 지난 12월 20일 오후6시30분 「안동동행라이브회관」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곡회 송년회를 가졌다.

권기춘사무국장의 사회로 상례 행사에 이어 권영훈회장은 인사에서 우리모두는 일가간의 족의를 더욱더 두텁게 하며 상호간에 공존공생, 상부상조를 능곡회 발전에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권혁록 능우회장의 격려말



◇지난 12월 20일 능곡회 권영훈회장이 송년회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있었으며 푸짐한 경품권 추첨으로 능곡회,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했다. <권혁세 기자>

# 마포중친회 제23차 정기총회



◇권승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포중친회(회장 권승구)는 지난 12월 26일 오후 7시 마포구 신흥덕동 「우가촌회관」에서 남아족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일부 총리의 사회로 시조 태

# 2014년 서울청·장년회 신년회



◇원내 서울청년회(좌)권승호 선임회장, 혁창 전임회장이 악수장면(아래)신년하례모습

서울 청·장년회(회장 권혁창)는 지난 1월 9일 오후7시 강남역 인근 강남역점에서 초대회장 권영상 고문을 비롯 권건준 대의원부총재, 권영석 서울산악회 회장 및 당회 임원진,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 겸 정기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순용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대사공께 망배에 이어 혁창 회장의 새해인사로 “오늘 신년 하례에 참석 해주신 영상 고문, 그리고 모처럼 왕립해주신 건준 부총재, 영석 안동권씨 서울산악회장 및 임원진, 회원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신년 새해를 기해 거듭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평온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라고 인사하였다.

이회는 지난해 회장 사외에 따라 임원개선에 드려가 현 권승호 수석부회장의 선임을 요청, 전원

동으로 선출되었으며 수석 부회장에 권계주(36世 . 추밀공파, 現영등포소세 현대자산운용 마케팅본부 전무, 54년 갑오생)씨가 선임되었으며 이외 임원진은 참석한 회원모두 박수로 동의하여 연임되었다.

이어 축사로 영상 고문, 건준 부총재, 영석 산악회장 등이 하였고 공지사항으로 前경철청 기획실장 권기선 치안감이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 년초 승진 발령받았는데 서울청장년회로 축전을 보내어 왔으며 또한 최근 기업은행(BK) 은행장에 권선주(57) 여성은행장이 새 정부 들어와 처음으로 발탁되어 권 문에 남보를 안겨주었다.

끝으로 3월 첫째주 정기 월례회는 차기 권승호 선임회장 취임식에 하기로 하고 신년하례회를 폐회하였다. <권범준 홍보부장>

## 괴운칼럼

# 갑오년의 소망

■ 괴운 권해조

올해는 갑오년 말의 해이다. 말은 십이지(十二支) 동물가운데 가장 튼튼한 육체와 활력의 상징으로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존재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육십갑자에서 천간(天干)의 갑(甲)은 창색을 뜻하고, 지지(地支)의 오(午)는 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올해는 푸른 말(靑馬)의 해로 동양학에서 창색은 곧 진취적이며 활발함을 뜻하여 역술가들은 올해는 좋은 운을 품은 해라고 한다.

그러나 갑오년의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평탄하지만 않다. 삼국시대 874년 갑오년에는 신라 최치원이 18세 나이로 당나라 외국인 전형인 과거시험 빈공과에 장원급제하였다. 고려시대 1174년은 무신정권 전복을 위해 병부상서 조위 총이 병란을 일으켰고, 1234년에는 몽골의 3차침입이 있었다. 조선시대 1474년에는 성종이 4차 경국대전을 반포했고, 1504년 임진왜란

중에는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협상이 전개되어 조선관민들은 일본군과 명군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1654년은 러시아 남침이 빈번하자 청의 요청으로 나선정벌이 있었고,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이 있었지만 미완의 근대화로 끝났다. 1954년에는 사사오입개헌과 6.25전쟁 폐허의 복구사업이 한창이었고, 독도등대에 처음 불을 밝혔고 통일호 열차기 경부선을 달리기 시작했다.

2014년 올해의 갑오년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학자들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120년 전 1894년 갑오년 당시 상황과 흡사하다고 보고 있다. 1894년 갑오년 3월 전봉준이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키자, 조정에서 진압할 능력이 없어 청군과 일본군을 끌어들여 양국군대의 전장(戰場)이 되었다. 결국 6월 청일전쟁이 발발하였고, 7월 친일개화당이 집권하여 재래의 문물제도를 고치고



혁신으로 나리를 세우고자 3차에 걸쳐 단행된 갑오경장이 아관파천으로 19개월 만에

좌절되고 말았다. 지금의 한반도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풍파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잠정택 처형 후 북한의 정국불안으로 국지도 발이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도 높다. 북한 급변사태 시에 핵무기 관련 문제로 중국과 미국의 쟁탈전으로 핵전쟁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남북대화는 단절되고 우리사회도 소통과 통합이 사라져 극도의 이념대립으로 갈등과 분열의 늪에 빠져있고, 정치권의 여야정쟁으로 국정방향도 상실하고 경제성장도 동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해로서 자치하면 또다시 의세의 전투장으로 변모할지 모른다.

2014년 갑오년 남북한과 우리민족에 대단히 중요한해이다. 한반도 통일과 선진국도약을 위한 새로운 원년이 되느냐, 아니면 당파적 이

익에 매몰되어 민족적 비극을 자초했던 1894년 갑오년의 전철을 다시 밟아 주변강대국들의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새우신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올해는 우리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동운명체를 구축할 시점이며, 새로운 제2의 갑오경장이 필요할 때이다.

마침 지난 6일 박근혜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경제, 정치, 사회 전 분야에서 의욕적이고 구체적인 소견을 피력하여 큰 기대가 된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야한다.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했다.

먼저 통일은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조건이다. 통일은 남북한 공동주도로 참여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성공시켜 남북관계를 먼저 풀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모두가 이기심을 버리고 조국통일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한다. 남북한이 힘을 모아 한반도 위기상황을 주도적으로 타개해야한다. 다음은 ‘우리경제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비

## 동정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일 새해 첫 일정으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훈령병들과 오찬 후 의료체계를 점검했다.



▲권기선치안감(51, 예천, 36世, 북야공파)이 지난 12월 25일, 경북경찰청장으로 승진발령됐다.



▲권오을 前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마포구 소재 권영산씨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2부 행사로 만찬 후 장기자랑과 행운권추첨을 하고 폐회했다. <울산중친회 총무 권은목>



▲권영세 안동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이사회에 참석해 지난 한해 성과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바이오 산업육성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내었다.



▲오일백(주)(대표 권오감)는 지난 6일 올해부터 전국 직영주유소의 순이익금 가운데 1%를 소의개장을 위해 기부한다고 밝혔다.



▲권기탁 안동시의회이전국광역시치단체에서는 유일한 경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제3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의환은행나눔재단(권택명 상근이사)는 지난 12월 26일 새터민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기초교재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실장이 지난 12월29일 자유민주연구학회 이사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를 내세웠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 하기위해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한 경영 개혁이 필요하며, 창조경제추진을 위해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발족시켰으며,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의 5대서비스 산업집중 육성하겠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올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첫 갑오년으로 소망도 크다. 지난시대 갑오년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그동안 이념대립으로 힘들어진 국민통합과 국민소득 3만 불시대의 제 2의 경제도약을 이루고, 해방 후 70여년 분단된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 고사처럼 강대국들의 패권야욕을 막고 아래 펼쳐버리고 자유통일을 위한 험난한 길을 질주하는 영웅적인 푸른 말의 해가 되는 것이 소망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